

SK케미칼, 생활위생용품 복지시설 기증

SK케미칼(대표 김창근 부회장)은 수원지역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기증하기로 하고, 수원시(시장 김용서)에 물품증서를 전달했다고 7월24일 발표했다.

기증하는 물품은 여름철 필수적인 위생용품으로 노인시설 21곳, 장애인 시설 14곳, 독거노인 1668가구, 소년 소녀가장 27가구 등에 전달된다.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은 “SK는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인류행복에 공헌하는 것을 경영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7/26>